

과학의 객관성과 포스트모더니즘

글 | 엄정식_ 서강대 철학과 교수 jsumek@hanmail.net

사물의 본질과 현상의 구조를 궁극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개념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을 동시에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근대에 들어와서는 언어적인 관심과 과학적인 관심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의 언어관은 일종의 지칭설이다. 잘 다듬어진 언어는 실재하는 세계를 제대로 지칭함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서양의 근대 사상은 데카르트의 기하학적 언어관과 뉴턴의 역학적 물리학이 엮어 낸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 체계를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심지어 어떤 종류의 체계도 거부하는 입장을 우리는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부른다.

토마스 쿤, 실증주의적 과학관 근본부터 부정

모더니즘에 의하면 이 세계는 우리의 관념이나 인식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규칙의 체계를 지니며, 그 체계를 인간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험과 관찰 및 추론을 통해 접근하는 이른바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철학자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근대사상을 지탱하던 언어관과 과학관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이른바 철학에서의 ‘언어적 전환’을 주도한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과 실증주의적 과학관을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은 토마스 쿤이 있었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언어는 사물과 현상을 지칭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어의 여러 가지 기능 중 하나에 불과하다. 게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게임의 공

통적인 본질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듯이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칭하는 게임뿐만 아니라 명령하고, 이름 짓고 감탄하고 전달하는 등 다양한 게임에 참여함으로써만 어떤 언어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어떤 단어의 의미를 묻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둑의 규칙을 장기에 적용할 수 없듯이 지칭의 규칙을 명령에 적용할 수 없고, 예술적 혹은 종교적 언어 게임을 과학적 언어 게임에 적용할 수 없다. 과학은 과학자들의 공동체에서 활용되는 일종의 언어 게임이며, 그것은 다른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수정을 거쳐서 때로는 혁명적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이론과 과학자들의 공동체가 공유하는 ‘패러다임’ 개념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쿤은 과학이 종교나 예술과 달리 축적된 지식이며 세계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부정한다. 따라서 그것은 세계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가 없고 실재에 관한 기술도 아니며, 그것이 제공하는 체계성과 객관성은 과학 공동체 안에서만 통용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근대적 과학관과 거리가 먼 것이다. 포스트 모던적 사고는 이러한 언어관과 과학관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된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조 중 하나다.

로티, 신실용주의 창안..“과학은 ‘만들기’에 불과”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과 쿤의 과학관을 계승하고 그것을 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켰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형태인 신실용주의를 만들어낸 인물이 미국의 리처

드 로티다. 로티가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배운 것은 철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작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 게임 안에서 사용된 언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그가 쿤으로부터 배운 것도 역시 과학이 객관적 지식의 탐구가 아니고 과학자 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합의' 혹은 패러다임을 이끌어가는 '활동'이라는 점이었다. 이러한 배경과 이론을 바탕으로 그는 과학이란 '발견하기'가 아니고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 이러한 구분 자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리나 객관적 지식에 대한 질문은 '나쁜 질문일 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모하게 하는 (그릇된) 원천'이므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그는 과학을 일종의 언어활동으로 보고 다른 언어활동, 가령 종교나 예술에 비해서 특별한 권위를 누리는 활동은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로티에 의하면 '객관성'이나 '합리성'이라는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고 오직 사람들 사이의 '유대성'과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유용성'이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는 실용주의의 전통에 따라 지식이란 단지 신념일 뿐이며, 거기에는 오직 '더 유용한 것'과 '덜 유용한 것'의 구분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지동설을 믿는 이유는 단지 천문학과 우주여행이 주는 이익이 아직도 천동설을 믿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주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는 '상대주의: 발견하기와 만들기'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신념에 관한 질문은 그것이 실재에 관한 것이나 현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가장 좋은 행동 습관인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떤 신념이 '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밖의 어떤 대안적 신념도우리가 아는 한 더 나은 행동 습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로티에게 결국 지식이란 실재에 대응하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도구에 불과하다. 그가 과학을 '자연에 적용시키기 위해 잇대어 발명된 상상적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진리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가르친 니체를 존경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허무주의 극복이 과제

로티는 과학이 추구하는 객관성 대신 '유대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특정한 사회가 탐구의 어떤 영역에서 인정하는 유용성'이라고 정의한다. 그것은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한 강제되지 않은 합의' 혹은 상호주관적 합의의 결과로서 탐구하는 개인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는 실재와의 대응이나 현상의 지칭을 문제 삼지 않으며 오직 유용성만을 전제로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윤리적 혹은 실천적 토대만을 지닐 뿐 결코 인식론적인 토대나 형이상학적 토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과학도 좀 더 나은 세계관과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면 그 임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로티의 실용주의적인 과학관이며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의 과학관이기도 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서 실재와의 대응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능력의 원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과학의 발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는 어느 것이 좀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합의된 바대로 계속 항해할 수 있다. 여기서 과학은 나침반에 비유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도가 없이 주어진 나침반일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의 진보는 항해가 아니라 일종의 표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만약 진리의 발견 혹은 실재의 탐구라는 목표가 없다면 변화는 있겠지만 진보의 의미는 상실되며 따라서 유용성이나 유대성의 의미도 상대적으로 퇴색되고 말 것이다. 가령 일기 예보는 단순히 '상상적 가정'의 결과가 아니며 반드시 유용성을 위한 유대성의 산물도 아니기 때문이다. 니체로부터 비롯된 포스트모더니즘과 이에 근거한 새로운 과학관은 이러한 허무주의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㉔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웨인주립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